

상록탑

# 스승이 내게 남긴 키워드(Key word)

### #용기

초등학교 3학년, 필자는 또래보다 키도 작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발표 시간에는 길고 긴 고민 끝에 손을 들었고, 즐거워야 할 피구 시간에는 가장 먼저 공을 맞고 선 밖으로 나가 '수비'만 하는 아이였다. 이런 필자에게 담임선생님은 사립으로 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웅변대회에 나갈 것을 제안하셨다. 이후 몇 달간 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 장소를 불문한 하루 4시간의 특훈이 이어졌다. 대회 당일, 수줍은 많은 아이는 200명이 넘는 관중 앞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 #도덕성

중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은 규범에 매우 엄격한 분이셨다. 매일 도덕 일기를 써야 했고, 교칙을 어길 경우 '사랑의 매'도 아끼지 않으셨다. 나를 '중2병'에 걸린 것 같이라며 머리 조금 길러보겠다고, 색깔 있는 신발 좀 신어보겠다고 까불던 필자에게 담임선생님은 도덕성이 그 사람 전체를 보여준다고 말씀하시며 엄격한 교칙 준수를 강조하셨다.

### #정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 대한 정이 남달랐던 담임선생님은 첫 만남부터 반 아이들 모두의 출석번호와 이름을 외워오셨다. 우리들 생일이 다가오면 '가장 예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주시겠다고 교내·외 예쁜



윤다솜 편집부국장

“스승의 키워드, 나를 만든 8할”

다고 소문난 장소들을 학생들과 함께 뛰어 다녔다. 사진에 담긴 18살의 우리 모습은 선생님의 손 편지와 함께 전달됐다.

스승. 사전적 의미로 가르쳐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을 뜻한다. 초, 중, 고, 대학 시절까지 필자에게 수많은 스승이 있었다. 그렇기에 스승의 날이 되면 떠오르는 스승의 상(像), 키워드는 다양하다. 용기, 도덕성, 정 등이 그것이다.

용기를 통해 새로운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도덕성은 필자가 1순위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지금도 필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연을 수 있는 가장 큰 수확이 정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물론, 스승에게서 배운 모든 키워드를 내재한 사람이 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만해지는 필자를 부단히 이끄는 것은 스승으로부터의 가르침이었다. 용기, 도덕, 정 등이 필자에게 하나의 규범적 공식이 된 것이다.

지난 4일, 본교도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스승의 날 케이크는 날개를 달고' 이벤트를 열었다.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스승에게 감사함을 전하면 그 중 Best 사연을 골라 케이크를 전달하는 이벤트였다. 이에 이화인들은 댓글을 통해 스승을 '비판적 사고를 갖게 해주신 분', '공감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필자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스승이 전한 특별한 '키워드'가 있는 것이다.

이 곳, 이화에서 필자에게 강력한 키워드를 남긴 스승은 '네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라'고 말씀하셨다. 담임선생님도,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 있는 교실도 없는 대학이지만, 이곳에서도 스승은 끊임없이 키워드를 남긴다. 스승과 제자, 스승이 남긴 키워드와 제자의 삶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이제껏 나의 키워드를 만들어준 스승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에 참 감사하다.

학생 칼럼

# 무지를 외치는 사람들

지난 해 12월, 서울 성북구에 청소년 성 소수자 쉼터인 핑동이 문을 열었다. 사실 핑동 설립은 역사에 남을만한 사건이다. 청소년 성 소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초 쉼터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엔 <한겨레 21>도 핑동 설립 소식을 전하며 청소년 성 소수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줬다. 한 친구는 부모님에게 동성애자인 걸 들켜 집에서 쫓겨났다. 또 다른 친구는 가족에게 성 정체성이 알려져 병원에 끌려갔다 퇴원 직후 집을 나왔다.

그러나 기사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함을 넘어 공격적이었다. '동성애로 인해 매년 1천명 이상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한다. 동성애자들의 감성팔이에 놀아나지 말고 정신차리자(댓글 추천수 142개)' 사람들의 공격적인 반응은 비난 핑동 설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한 보수 단체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 지식을 알려줄 수 없다며 6월에 열릴 퀴어 축제를 반대하고 있었다. 또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을 담은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시민들간의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단 이유로 폐지되었다.

사람들은 경험, 지식, 기존의 태도 등 다양한 개인적 변인들과 외부 단서에서 의해 특정 사안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형성한다. 대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혐오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혐오감을 갖는 것과 혐오감을 드러내며 대상을 쫓아내리는 것은 다르다. 특히 이



조은혜 광고홍보11

“우리사회는 여전히 다양성을 짓밟은 채 무지를 외친다”

화에 다니는 우리들은 후자의 폭력성을 잘 알고 있다. 이화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이화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표현은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화인들은 이화가 나오는 기사의 댓글을 보지 않는다. 반박도 하지 않는다. 스스로 침묵하게 됐다.

성 소수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번 학기 과제때문에 만난 성 소수자들의 1/3 정도가 나는 정말 비정상일까, 아웃팅을 당하면 어쩌나 싶어 청소년기에 자해 혹은 자살을 시도했다. 성 정체성이 '추축'된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도 있다. 물론 아닌 이들도 있다. 스스로 높은 프라이드를 가져 손가락질하는 이성애자들을 되려 비난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상처에 무뎠지는

인간은 없다.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뽕뽕 뭉쳐 있는 사람이라도 비난이 계속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웬만한 일엔 침묵한다. 더 나쁜 경우 호모포비아가 된다.

일부 이성애자들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섹스는 에이즈의 위험이 없는가, 퀴어 축제 하나로 아이들이 동성애자로 바뀔 거라면 평생 이성애자 중심의 교육을 받은 성 소수자들은 왜 이성애자가 아닌가. 바이인 여성 혹은 남성인 이성애를 만날 땐 정상이고 동성을 만날 땐 비정상인가. 필자가 만난 성 소수자들이 그들을 비난하는 다수에겐 단진 질문 중 몇 가지다. 그들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라도 구분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무지는 편견을 만들고 편견은 비난을 만든다고도 했다.

지난 3월 29일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성교육 표준안 연수자료'를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넘쳐나는 성 지식 속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지식을 얻고 바른 가치관을 세우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한 표준안이었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허락되지 않는다”,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리키는) 용어 사용을 금지”, “(기존 교육안에서) 성 소수자 내용을 삭제”하라는 등 성 소수자를 배제하는 내용이 있었다. 다양성을 존중하라 가르치지만 그 다양성에 성 소수자는 없다. 사회는 여전히 다양성을 짓밟은 채 무지를 외친다.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은 말이 많다. 루소의 말이다.

여론광장

# 참 관찰은 우리

개인적으로 외모,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처럼 굵고 길게 지속되는 화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현대 사회에서 외모는 하나의 능력이고, 스펙이자 자기관리의 일환으로서 받아들여지는 듯하다. 그의 여파 때문일까, 체감 상으로도 점점 성형수술 및 시술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늘고 그 연령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종종 그러한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거나, 심지어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물론 성형을 한다는 것이 터부시 되어야 한다거나 문제가 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나 역시도 지극히 무난하고 평범한, 혹은 그 이하일수도 있는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 점점 더 꽃 같아지는 우리나라 여성들에 대한 괴리감에 우울해했으며 부모님께 제조사 애프터 서비스를 무작정 요구하기도 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남들도 한 번씩은 다 겪어본다는 일련의 과정을 똑같이 겪어 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20대의 여성으로서, 내 또래의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 사회가 우리가 가진 가치를 외적 요소 등 단적으로 평가해

릴 때가 적지 않고, 또 우리 스스로도 지나치게 이상적인 가혹한 기준을 내세워 깎아내린다는 점이다. 스스로가 생각해도 전형적이고 식상한 것이지만, 종종 내 자존감이 말바닥으로 치달았을 때 자신에게 '난 이런 점이 멋있고, 이런 점은 내 매력이고, 이 점에서 탁월해. 그게 어떤 의미든 세상에 이런 애는 나 하나 밖에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암시를 걸곤 한다. 굉장히 민망하고 누가 볼까 두려운 것이지만 고전적이고, 그만큼 효과가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자존감 넘치는 사람은 참 매력적으로 보인다. 스스로를 더 아끼고 사랑해주자, 우리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 말이다. 박수민(불문·13)

사설

# 양심버린 부정행위, 체계적 관리 필요

최근 대학가는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뜨거웠다. 서울대 일부 과목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철학과 교양과목에서는 집단커닝이 발생했으며 통계학과 전공과목에서는 문제 확인 차 나눠준 답안지를 수정해 제출했다.

부정행위 논란은 본교도 피해갈 수 없었다. 이번 학기 전공과목 중간고사에서 한 학생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시험 답을 검색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또 다른 전공과목 쪽지시험에서는 한 학생이 옆자리에 앉은 친구에게 답을 물어보거나 교재를 펼쳐 베끼기까지 했다.

본교의 시험 부정행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학기에도 옆 사람의 답을 커닝하거나 교재를 보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시험 시간 중간에 시험장을 나가 해당 내용을 보고 오기까지 했다.

학점에서 오는 압박과 허술한 관리체계가 부정행위 발생의 근본원인은 아닐까. 학생들은 높은 점수 즉, 높은 학점을 원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공부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높은 학점을 받아야한다, 혹은 받고 싶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잘못된 수단을 선택한 것이다. 철저하지 않은 시험감

독, 해당 학생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처벌 등이 이를 야기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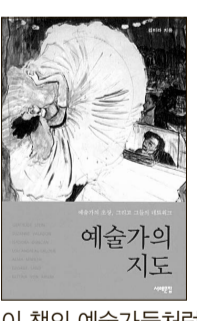
까다로운 징계 절차와 이에 대한 홍보 부족은 적절한 조치를 어렵게 했다. 본교 학칙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한 학생은 건책, 근신부터 심한 경우 퇴학까지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 심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대학(원)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이마저도 홍보가 잘 되지 않아 모르는 교수도 다수였다. 실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징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징계가 진행된 사례는 단 2건이었다.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수업을 듣는 학생 전원은 기존에 치른 시험이 무효화된 것으로 인해 재시험을 봐야했다. 이 같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은 허탈함, 실망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학습의욕이 꺾이는 기분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정직한 공부와 성실한 태도보다 요행이 더 잘 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요행을 바라지 말자. 정직하게 공부하고 정직한 결과를 얻자. 한 순간의 비양심이 본인은 물론 나아가 이화 전체의 얼굴이 될 수 있다. 보다 체계적인 부정행위 관리 및 처벌, 교수들의 적극적인 조치, 양심적인 학습 태도가 필요한 때다.



금주의 책



**예술가의 지도** 김미라 저. 서울: 서해문집, 2014  
피카소, 헤밍웨이, 마티스, 이들이 모두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자는 예술계에 많은 영향을 준 일곱 명의 여성 예술가와 그들과 인연을 맺은 수많은 예술가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트루드 스타인, 이사도라 던컨, 조르주 상드 등이 책 속의 주인공들은 한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이면서 그와 동시에 다른 예술가들의 조언자로, 때로는 영감을 주는 뮤즈로 존재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했기 때문에 예술혼을 더 화려하게 불태울 수 있었던 이 책의 예술가들처럼, 이화인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스승과 벗을 만나길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대 도서관 좋은 책 추천위원회-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인기도서], [3층 일반자료실 700.922 김49에]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 대역사만화	박시백	휴머니스트	2005-2013
2	三國志 / 개정판	나관중	民書社	2002
3	소설 심판사	진순신	자음과모음	2004
4	과학 혁명의 구조	Kuhn, Thomas S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0
5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 사진의 작은 역사(외)	Benjamin, Walter	길	2007
6	호두까기인형	Hoffmann, Ernst Theodor Amadeus	인디고	2012
7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Bourdieu, Pierre	새물결	2005
8	이강백 회곡전집	이강백	평민사	1982-2004
9	7년의 밤 : 정유정 장편소설	정유정	은행나무	2011
10	타나토노트 : 베르나르 베르베르 장편소설 신판	Werber, Bernard	열린책들	2000
11	노동과 페미니즘	조순경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12	(벽초 홍명희) 임궫정 / 3판	홍명희	사계절	1995
13	킨포크	Williams, Nathan	책읽는수요일 : 한국물가정보 · 디자인이음	2014-